

해외파 에이스 출격...남자농구 '전설' 시작된다

이현중·여준석 등 한국 대표팀, 6일 호주와 2025 FIBA 아시아컵 조별리그 1차전 레바논·카타르와 '죽음의 조'...1969년·1997년 이어 우승 도전

해외파 에이스 듀오 이현중(나가사키)과 여준석(시애틀)을 앞세운 남자 농구 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에서 '전설'을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안준호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은 오는 6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에서 호주와 2025 FIBA 아시아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른다. 이어 8일 카타르, 11일 레바논과 맞붙어 8강 진출을 노린다.

아시아컵은 16개국이 4개 팀씩 4개 조로 나누어 경쟁하는 형식이다. 각 조 1위는 8강 토너먼트에 직행하고, 2·3위는 8강 결정전을 치른다.

한국은 1960년부터 매 대회 본선에 참가해 1969년과 1997년 우승을 맛봤다. 2022년 열린 직전 대회에서는 8강에서 발길을 멈췄다.

안준호 감독은 "전사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남자 농구의 '전설'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올렸다.

"전설"이 되기 위한 선봉엔 에이스 듀오 이현중과 여준석이 선다.

미국 대학농구, 미국프로농구(NBA) 하부리그인 G리그, 호주 리그 등 한 단계 높은 리그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온 이현중은 지난달 안방에서 열린 평가전 4연전에서 자신이 왜 한국 농구 에이스인지 증명했다.

이현중은 일본을 상대로 25점, 19점, 카타르전에서는 20점, 21점을 기록하며 필필 날랐다.

또 공격과 수비 등 실력뿐만 아니라 선수단 내 대화, 파이팅, 투지 넘치는 몸짓 등으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며 팀 전체를 이끌었다.

여준석은 특유의 운동능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체공 시간을 자랑한다.

골 밑 리바운드 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으며, 높게 떠올라 림을 부술 듯한 시원한 덩크로 팀의 에너지 레벨을 높인다.

특히 카타르와의 두 번째 평가전 막판에는 양준석(LG)의 패스를 받아 받지 않는 엘리움 덩크를 꽂아 넣어 팬들의 엄청난 환호를 끌어내기도 했다.

이제는 대표팀 간판 슈터로 거듭난 유기상(LG)도 아시아컵을 통해 세계로 발돋움하려 한다.

일본과의 1차전에서 3연속 3점포를 포함해 총 5방의 외곽슛을 꽂아 넣더니, 카타르와의 첫 경기에서도 '눈꽃슈터'의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했다.

메인 볼 핸들러 역할에 집중하게 된 이정현(소노)도 유기적인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때로는 직접 외곽포를 쏘며 '윙팁 코리아'의 핵심 자원 역할을 톡톡히 수행 중이다.

여기에 리바운드 다툼과 거친 몸싸움 속에서 굵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승현(현대모비스)과 김종규(정관장), 컨디션을 끌어 올리고 있는 하운기(kt) 등 센터 라인도 묵묵히 제 몫을 한다.

수비로 정평이 난 정성우(한국가스공사)도 상대 가드를 끈질기게 괴롭히며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그러나 '전설'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안준호 감독은 A조를 '죽음의 조'라고 일컬었다.

아시아컵 참가국 중 단연 최강인 호주(FIBA 랭킹 7위)가 무난하게 A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



20일 경기도 안양정관장이레나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2025 남자농구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과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여준석이 투핸드 덩크슛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가운데 8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2, 3위를 놓고 레바논(29위), 한국(53위), 카타르(87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다.

레바논은 2022 아시아컵 결승에서 호주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한 강호다.

아시아 최고 가드로 평가받는 와엘 아라지가 버티고 있고 2023-2024시즌 KBL 원주 DB를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끈 외국선수 최우수선수(MVP) 출신 디드릭 로슨이 귀화선수로 합류했다.

최근 맞붙은 카타르(87위)는 우리나라보다 순위

는 낮지만 방심할 수 없다. 혼혈 선수가 즐비한 데다가 최근 귀화한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가드 브랜던 굿윈이 본격적으로 손발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더욱 위력적인 팀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 투척 강자들 목표로 모인다

21·22일 아시아투척선수권대회 25개국 250여명 8개 종목 대결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 한자리에

목표에서 아시아 투척 강자들의 경쟁이 펼쳐진다.

아시아육상연맹과 대한육상연맹, 목포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아시아투척선수권대회'가 21·22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와 전남육상연맹(회장 김용주)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25개국 250여명(선수 180명, 임원 7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등 남녀 총 8개 종목에서 경기가 진행되며,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해머던지기 동메달리스트이자 한국신기록 보유자인 김태희(익산시청)와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해머던지기 신기록 보유자인 카타르의 애쉬리프 엠가드 엠 아 엘시어파이 등이 참가해 명승부를 펼친다.

또 국내 최고의 투척 전문 대회인 '제21회 목포 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회 개최식은 20일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리고, 환송식은 22일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진행된다. 지도자들의 교류 무대도 마련된다.

대회 부대행사로 여자 포환던지기 세계기록(22.63m) 보유자이자 88올림픽 포환던지기 금메달리스트인 나탈리아 리소브스카야(우크라이나)와 함께 장정롱(중국), 꾸엔(베트남) 등 아시아



2025 아시아투척선수권대회가 오는 21·22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대회에서 일본 선수가 창 던지기 종목에서 경기를 하는 모습. <전남도체육회 제공>

아 주요국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육상 지도자 강습회가 열린다.

김용주 전남육상연맹회장은 "국내외 우수 선수와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전남 육상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릴 소중한 기회다.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 운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UFC 무패 박현성, 한일전서 '쓴맛'

다이라에 2라운드 서브미션 패

종합격투기 선수로 데뷔하고 10전 10승 행진을 벌였던 박현성(29)이 처음으로 패배의 쓴맛을 봤다.

박현성은 3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UFC 에이펙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다이라 vs 박현성' 메인 이벤트 플라이급 경기에서 다이라 다사로(25·일본)에게 2라운드 서브미션 패했다.

UFC 진출 후 2연승을 달리다가 불과 3경기 만에 메인 이벤트 기회를 얻었던 박현성은 플라이급 랭킹 6위 다이라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지난해 UFC 플라이급 랭킹 1위 브랜던 로이발(미국)에게 첫 패배를 당했던 다이라는 박현성을 잡고 종합격투기 통산 전적 17승 1패를 거뒀다.

박현성과 다이라의 경기는 UFC 사상 최초의 메인 이벤트 한일전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제 막 UFC 무대에서 3번째 경기를 치른 박현성과 랭킹 6위 다이라의 격차는 컸다.

당초 박현성은 10일 같은 장소에서 플라이급 랭킹 10위 스티브 얼섹(미국)과 대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이라의 원래 상대인 아미르 알바지(이라크)가 다치면서 적은 차 미국에 가 있던 박현성에게 갑작스럽게 기회가 찾아왔다.

박현성은 1라운드 초반 탐색전을 벌이다가 다이라의 스트레이트에 맞고 쓰러졌고, 이후 다이라가 자랑하는 그라운드 기술에 고전했다.

1라운드를 사실상 내준 박현성은 2라운드에도 다이라의 태클에 쓰러졌다.

상대의 등 뒤를 잡는 기술에 능한 다이라는 박



경기 후 다이라와 포옹하는 박현성(왼쪽). <UFC 제공>

현성의 얼굴 부근을 강하게 졸라매는 기술을 곁였다.

잠시 버티던 박현성은 결국 탭을 쳐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식 기록은 2라운드 1분 6초 페이스 크랭크에 의한 서브미션 패다.

페이스 크랭크는 기도를 조르지 않고 통증을 유발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기술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광주예술의전당 문화산책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조선아 개인전 : 시간을 담다 일시 : 2025-07-11(금)~2025-08-10(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